

## 신현대(전 청와대 한방주치의) 1차 구술

1. 구술자: 신현대
2. 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2년 5월 2일
5. 구술장소: 서울 강남구 구술자 사무실
6. 구술분량: 07분 24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한방주치의로서 접한 대통령의 면모

면담자 : 처음 박사님께서 주치의에 대해서 연락을 받으신 게 언제쯤 이셨던 거예요?

구술자 : 정확하게 모르겠네. 근데 취임하시기 전이지요. 그래서 이자(이제)부터 한방계도 주치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속으로 나는 즐거웠지. 좋았어요. 그러나 한편으론 ‘야, 이거 진짜 힘들겠구나.’ 어떤 책임감이 내(나)한테 오더라구요. (첫 인상이) 상당히 서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상당히 친근감이 확 왔고. 친근감이. 그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구요. ‘한방에서도 주치의 했으니까. 한방에서는 한방에 나사줘야(낮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 했거든요. 대통령이 건강해야지만 나라가 건강하다. 그리 얘기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 ‘한방에서는 한방에 나사줘야 된다, 양방이 아니다.’ 그때부터 위뜨(wit)가, 재밌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편안했지요. 유쾌하지.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 뭐야, 자신감.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함을 갖고 계셨어요.

나를 많이 챙겨주셨어. 왜냐하면 한방 출신이 처음이라는 건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처음 시작하니까 무언가 소외감을 안 느낄까, 그래서 눈빛,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여사님도 그래 해주셨고. 아, 봄에. 저 꽃필 때 청와대 산수유가 있잖아요? 내보고 저 ‘저게 뭐냐’ 물어. 산수유다, ‘산수읍니다’ 하니까 ‘산수유는 그 중에서 (약으로) 뭘 쓰느냐.’ 근데 그게 산수유의 저 열매를 쓰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때 대답을 못해서 하니까 참 대단한 게, 아 ‘약 처방은 잘 내시니까, 약 그 자체 그거는 굳이 안 알아도 되죠’ 그래. 이렇게 사는 상대

방의 어떤 마음을 그래 잘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게 있어요. 정말 어디 쓰는 줄 모르, 어느 부위를 쓰는지 딱 묻는데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딱 그리 말씀하셔. ‘아, 약 처방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뭐 몰라도 되죠’ 이렇게. 그만큼 남을 이래 배려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어느만큼 그분이 그 했나하면(그랬냐 하면) 왜 따님이 애기 낳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왜 그 병원에 있었잖아요. 그날이 일요일이었어, 그때도. 그래서 애가 애 놓고 했으니까 그 병원에 가서, 가셨어요. 해산(解産)했지요 이? 그러면서 자꾸 가자고 그러셔, 가자고. 그래 여사님이 ‘아이 좀 있다 가지 뭐’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뭐라카느지(뭐라하는지) 아세요? ‘일요일 날 내 때문에 저 경호원들이 집에서 못 쉬고 이리 나왔다’ 이거야. 그래 ‘빨리 가야, 가서 저 사람들 쉬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 그런 사람이예요. 야 나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했지. ‘대통령님 저 분이 직업이 그런 겁니다.’ 웬걸, 그러니까 그라고 바로 일어나시더라고.

면담자 : 혹시 그 대통령님이나 여사님이 한의학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구술자 : 많이 알아요. 왜냐. 어릴 때부터 대통령님은 고향 그 자체에서 한약재를 많이 재배했는 것(재배하는 곳에서), 생활하시고 그라고 또 애들 키우는데 있어서 한방 치료를 받아갖고 크게 효과를 보셨더라고.

면담자 : 그 박사님께서 오미자차에 대한 어떤 책자 이런 걸 복사해 다가 드렸었다는 얘기도.

구술자 : 아, 많이 아시네. 그래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아유, 복사해드렸더니 ‘아 이게 동의보감입니까? 신농본초경<sup>1)</sup>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신농본초경까지 아신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만큼 한의에 대해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끝날 걸 갖다가 이 이 뭐랄까, 그거를 복사했는 그거를 어느 책까지로 이리 얘기하실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신농본초경이라 그랬지. 신농본초경을 아는 사람은 일반인들은 없어요. 그거

1) 중국의 후한(後漢)에서 진(晉)대에 성립된 본초서(本草書)로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약물학 서적이다. 양(梁)나라의 학자 도홍경(陶弘景)이 6세기 초에 교정(校訂)하여 <신농본초경> 3권으로 하고, 다시 주를 가하여 <신농본초경집주> 7권을 저술하였다. 후세의 본초서들은 모두 이것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서, 송(宋)의 <증류본초(證類本草)>는 가장 절정을 이루는 것이다. 맨 앞에 10조로 된 총론이 있고 이어서 365종의 약품을 상·중·하의 3품(品)으로 나누어 각각 기미(氣味)와 약효(藥效)와 이명(異名)을 서술한 약물서이다. 현재의 <신농본초경>은 명(明)나라의 노복(盧復), 청(淸)나라의 손성연(孫星衍) 등에 의하여 각각 재판집된 것이다. 허준박물관 홈페이지(<http://www.heojun.seoul.kr>) 참고

는, 그 책은 뭐냐 하면 한약만 다 모아놓은 책이에요. 동의보감은 약뿐만 아니라 병을 다 모은 거고. 신농본초경이라는 것은 한약만 다 모아놓은 책이 따로 있다고. 일반인들은 모르죠. 동의보감은 알지. 그래 내 그랬지. ‘아 이걸 어떻게 아십니까?’ 하니까 ‘내가 조금 안다’ 고, ‘조금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랬지 내가. 거기서부터 이제 재미난 대화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 어릴 때부터 자기 동네에 한약을 많이 심었대요. 그래 한약을 좀 안다 그러시더라고.

면담자 : 또 여쭙볼 게, 해외순방도 순방이지만 대통령님 그 재임기 중에 가장 큰 게 남북정상회담인데 그때도 수행해서 같이 가셨죠?

구술자 : 그래 이게, 대통령이 원칙은 인제 국내에서도 지방 가서도 따라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서울을 벗어나시면 무조건 같이 수행해야 됩니다. 그게 실은 내가 (남북정상회담) 갔다 와서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민족의학교류협의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용어도 좀 통일해야 되고. 말이 그 한의학이지 많이 우리하고 좀 틀린(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해방이 됐을 아니, 남북한이 저 저 통일됐을 때 한의계 분야를 빨리 우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정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래 그 이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학회, 민족의학교류협의회.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그 임기, 임기 말쯤 가셨었다 보니까 후속조치를 취할려다 보다가도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정부 딱 들어서고는 남북문제를 전부 다 문을 닫았다보니까 진전된 게 하나도 없고 하니까 그게 좀 아쉬워.

## ■ 구술자 주요 이력

1947. 대구 출생

1982. 경희대학교대학원 한의학 박사

1977.03 - 2003.02 경희대학교 한의과대 교수 및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장

1991.01 - 1992.12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회장

1997.01 - 1997.12 대한한 의사협회 이사

1998.01 - 1998.12 대한한방비만학회 회장

2000.01. 보건복지부 한의학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

- 2000.01. 전국한 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협의회 회장
- 2000.01. 한국방송공사(KBS) 의료자문위원회 위원
- 2000.01.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 2003.03. 2008.02 노무현 대통령 한방주치의
- 2006.06. (주)신현대한방연구소 소장
- 2008.09. 해당한의원 원장(2012년 현재)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한방주치의로 임명되어 2008년 2월 퇴임까지 함께했다. 주치의로서 대통령과 그 가족의 건강을 보살피는 일이 주 업무였으며 해외 순방 및 휴가 시에도 수행했다. 대통령 한방주치의를 둔 것은 참여정부가 처음이었다.